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에 나타난 삶과 실천적 글쓰기*

임보연**

<차례>

1. 서론
2. 초기작인 전(傳)에 나타난 윤지당의 가치관
3. 초기작 이후에 나타난 ‘효’와 ‘학문’에 대한 확립
 - 1) 권도(權道)로서의 효
 - 2) 주체적 성장의 기반, 학문
4. 『윤지당유고』의 의의 : 자기 정체성의 실천적 산물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를 통해 나타난 임윤지당의 정체성 형성의 배경과 확립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윤지당유고』에는 전(傳), 논(論), 발(跋), 설(說), 잠(箴), 명(銘), 찬(贊), 제문(祭文) 등의 35편의 글이 수록되어있다. 그동안 임윤지당(1721~1793)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성리학자로서의 면모가 밝혀졌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성리학자로 위치하였다. 『윤지당유고』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글이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문집에 수록된 글을 통해서 윤지당이 정체성을 견고히 해나가는 과정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초기작에 주목하여 윤지당이 삶에 지닌 가치관 및 태도를 좇아감으로써, 문집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문집의 가장 앞에 수록된 <송씨택부인(宋氏 能相 婦傳)>과 <최씨·홍씨 모녀(崔洪二女傳)>의 전(傳)을 통해, ‘도덕’, ‘효’, ‘학문’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가치관에 대한 윤지당의 견해가 문집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른이 거절을 해도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곁에 돕고자 하는 태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11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4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도나 남편에 대한 정절, 아버지에 대한 효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이후의 글에서 보이는 ‘권도(權道)로서의 효’로 이해할 수 있다. 윤지당의 글 곳곳에서 학문을 수양하고 기록하는 일이 부녀의 덕이 아님을 인지하면서, 그럼에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지당의 글은 대개 직설적이면서 비판적이다.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감추어 말하지 않고 생각을 거침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윤지당은 35편이 수록된 『윤지당유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보여준다. 초기에 쓴 전(傳) 2편을 통해서 정체성 형성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윤지당이 어떠한 가치관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그때 보여준 여성관, 도덕 및 효에 대한 가치관, 학문 탐구에 대한 관심이 『윤지당유고』에 수록된 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윤지당은 삶의 굴곡을 거치면서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굴곡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견고히 다져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윤지당유고』는 윤지당이 지닌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기록해둔 실천적 산물이다.

주제어 윤지당유고, 임윤지당, 정체성, 실천적 글쓰기, 효, 학문, 권도

1. 서론

이 논문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를 통해 나타난 임윤지당의 정체성 형성의 배경과 확립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약 10여년 전 조선 후기 여성 문인들의 문학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책들을 살펴보다가 윤지당이 오빠인 녹문 임성주와 학문적 교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는 한 줄에서 임윤지당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임윤지당(1721~1793)은 조선 후기의 여성 성리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윤지당의 본관은 풍천(豊川) 임씨(任氏)이며, 윤지당의 형제인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1711~1788)와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1727~1796)는 조선 후기의

대성리학자였다. 윤지당이라는 호는 오빠 임성주가 지어주었다.¹⁾ 『윤지당유고』에는 전(傳), 논(論), 발(跋), 설(說), 잠(箴), 명(銘), 찬(贊), 제문(祭文) 등의 35편의 글이 수록되어있다.

그동안 임윤지당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결과들이 축적되었다. 『윤지당유고』의 서지적 사항에 대한 것에서부터²⁾ 윤지당의 글쓰기 방식에 주목한 논의,³⁾ 여성관이나 정체성에 대한 논의⁴⁾ 〈중용〉이나 〈논어〉 등의 경전을 해석한 글에 주목하거나 안회(顔回)에 주목한 논문,⁵⁾ 임윤지당에 대한 단독 연구에서 확장되어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비

- 1) 이 글의 번역본은 ‘이영춘 옮김, 임윤지당 지음, 『윤지당유고』, 송키프레스, 2021.’을 따랐으며, 일부 수정을 하였다. 원문의 경우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을 따랐다. 이하 인용할 때는 인용 표기를 생략한다.
윤지당은 누님이 어렸을 때 우리 녹문 형님께서 지어주시던 당호이다. 대개 주자의 “태임과 태사를 존경하노라”하신 말에서 따오신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은 실상 태임의 친정이었던 ‘지중씨(임씨)의 지라는 글자를 취하신 것이다. “지임씨를 독실히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종 형님인 한정당 송공(송문흠)께서 직접 누님을 위해 도장을 새겨 주셨다. 이때부터 집안 친지들 사이에서 ‘윤지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允摯堂遺稿附錄』, 〈遺事 十六條〉, 允摯堂, 卽孺人少時我仲氏所命也. 蓋取朱子允莘摯之語而其義則實兼摯仲之摯也. 若曰篤信摯任云爾. 姨兄間靜堂宋公, 爲之手鐫圖書以與之. 自是家間多稱以允摯堂.)
- 2) 최연미, 「임윤지당의 생애와 윤지당유고」, 『서지학연구』 17, 서지학회, 1999; 강순애, 「『윤지당유고』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9, 한국서지학회, 2014.
- 3) 김남이, 「임윤지당의 한문 글쓰기 방식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24, 동양고전학회, 2006; 백민자, 「允摯堂의 女性 人物 서술 방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 4) 구민정, 「임윤지당의 자기 정체성 구성에 대하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유정은, 「『윤지당유고』의 傳에 구현된 여성관 연구-「송씨능상부」, 「최홍이녀」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 5) 김세서리아, 「조선 성리학의 태극음양론을 통해 본 한국적 여성주체형성 이론 모색-임윤지당의 「이기심성설」에 나타난 태극음양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2017;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중용』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유학연구』 5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2; 유정은,

교⁶⁾하거나 최근에는 한·월 여성 문인을 비교하는 논문에서 임윤지당을 주목⁷⁾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었다. 주로 성리학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는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라는 것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윤지당이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저술들을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임윤지당을 이야기할 때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를 제외시킬 수는 없지만, 성리학자 윤지당 외의 또 다른 모습을 좇아가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충분히 밝혀져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부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내의 잠언(忍箴)>이라는 글에서 “나는 본래 성질이 조급하여 어릴 때부터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잘 참지 못하였다.”라고 서술하며 기질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윤지당의 글들은 운문이 아닌 산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때로는 직설적이고 비판적 어조가 강하다. 자신이 마주한 상황들을 회피할 수 없기에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수양을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글들을 통해 그녀가 남겨놓은 문장의 어조를 보면, 윤지당이라는 인간의 면면을 들여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윤지당유고』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글이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문집의 수록된 글을 통해서 윤지당이 정체성을 견고히 해나가는 과정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윤지당유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에 나타난 안회연구」, 『동서철학연구』 105, 한국동서철학회, 2022; 이혜순, 「여성담론으로서의 임윤지당의 이기심성론-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서술을 위한 시론」,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6) 박현숙, 「임윤지당과 강정일당 문학의 사상적 기반」, 『한중인문학연구』 9, 한중인문학회, 2002; 이남희, 「조선후기 지식인 여성의 생활세계와 사회의식-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천은복, 「성리학적 수행론: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2.
- 7) 최빛나라, 「한·월 여성 문인의 인물평 비교 연구-『윤지당유고』와 『홍하부인유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3.

고』에 나타난 윤지당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배경과 확립의 과정을 좇아감으로써, 문집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초기작인 전(傳)에 나타난 윤지당의 가치관

『윤지당유고』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실려 있는 글은 전(傳) 2편이다. 여성이 여성에 대한 전을 썼다는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 있다. 윤지당의 전 두 편이 여성이 여성을 입전한 특징에 착안하여, 두 편의 여성을 다른 전(傳)에서 윤지당이 여성 인물을 서술하는 방식을 평면적 글쓰기와 입체적 글쓰기로 나누어, <송씨대부인(宋氏 能相 婦傳)>의 도입부는 평면적 글쓰기를 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두 편의 글은 입체적 글쓰기라 밝혔다.⁸⁾ 또 다른 논의에서는 윤지당의 전 두 편에 구현된 여성관에 대해 논의하면서,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에 주목하였고 이것이 이후 성범동류(聖凡同類) 사상으로 확장되었다고 하였다.⁹⁾ 이미 선행 연구에서 두 편의 전(傳)에 대해 분석하여 의미를 밝힌 의의가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에 집중되어있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의 행간을 좇아가면서 이 글을 좀 더 면밀하게 읽어보고자 한다.

이 두 편의 전(傳)은 결혼하기 전에 쓴 글로, 윤지당의 초기 시절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짧은 2편의 글에서 윤지당의 관심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으며, 어린 시절에 쓴 이 글에서 보여준 가치관이 이후의 논(論), 설(說) 등의 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윤지당유고』에 수록된 35편의 글 중에서 전(傳) 2편과 인물론(人物論) 11편, 총 13편의 이야기는 윤지당이 지닌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 인물론의 11편 중, 앞의 4편은 혼인 전에 쓴 글이다.

8) 백민자(2018), 앞의 논문.

9) 유정은(2022), 앞의 논문.

따라서, 이 2편의 전(傳)과 11편의 인물론은 윤지당의 인간관과 가치관 등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흔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윤지당의 초기작에 해당함으로 윤지당의 정체성 형성의 배경 및 단초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을 제시하고 윤지당이 초기에 가졌던 삶에 대한 태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송씨댁 부인(宋氏 能相 婦傳)〉이다.

사헌부 지평 한계진의 딸은 송씨댁 부인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는 슬퍼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시집갈 즈음에 고리짝을 들추다가 어머니의 필적이 나오면 몹시 비통하여 눈물로 치마저고리를 적시기도 하였다.

일찍이 시댁의 종형제들이 남편과 더불어 각자의 장래 포부를 말하면서 논란 한 적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는 율곡 선생의 도덕과 영예를 흠모한다”고 말하자, 한씨의 남편도 이를 옹기 여겼다. 여러 사람들이 나가자 한씨가 남편에게 “여러 형제들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하고 물었다. 남편이 “괜찮지!”하고 답하였다. 이에 한씨가 슬며시 웃음을 띠자, 남편이 “왜 웃으시오?”하고 물었다. 한씨가 대답하기를, “제가 생각하건대, 율곡 선생께서 훌륭하신 것은 그분의 도덕 때문입니다. 가령 율곡 선생께서 빈천하여 두메산골의 초라한 집에서 가난하게 사셨더라도 그 도덕에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또한 비록 영달하여 존귀하게 되셨더라도 그 도덕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형제들께서 만약 그 도덕만을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참으로 그 도덕을 흠모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도덕과 영예를 함께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의 도덕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마음속으로 그분의 존귀한 지위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괜찮다고 하시니, 옳으신 것일는지요?”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그의 높은 식견에 탄복하고, 드디어 분발하여 학문을 닦아 대학자가 되었다.

한씨는 시부모를 섬길 때 자부의 도리를 다하였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누에 고치를 삶아 실을 뽑는데, 여러 며느리들이 도와드리고자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으나, 한씨만은 돌아가지 않았다. 숯불에 부채질을 하며 일을 도와드리고, 조심조심하며 거동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수고를 안타깝게 여겨 불이라도 때어 일을 덜어 드리려

고 한 것이다.

한씨는 비단 식견과 행실이 탁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예에도 재주가 있었다. 친정 부친이 세속의 구구한 소리를 믿고 글을 가르치지 않았으나, 혼자서 사서삼경의 경서와 역사책들을 배우고 어지간히 그 뜻에 통달하였다. 불행히도 단명하여 일찍 죽으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겠는가?

기리는 글

송씨덕의 부인인 한씨여	宋氏婦韓
아름다운 덕성에 행실도 단정하였네	令德孔飭
어버이에 효성을 다하였고	既孝於親
그 식견도 뛰어났다네	又達厥識
부군을 이끌어 정도로 가게 하고	引夫當道
뜻을 분발시켜 학문하게 하였네	勵志爲學
예로부터 일컫는 여자 선비는	古稱女士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非是之謂
명이 짧아 오래 살지 못하였지만	不祿其年
멈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네.	未見其止
낭개는 왜 하며, 죽개는 왜 하는지	生何奪何
알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네	難諶者理 ¹⁰⁾ (밑줄 표기 : 필자)

10) 『允摯堂遺稿』上篇 傳, 〈宋氏 能相 婦傳〉, 韓持平啓震之女. 宋氏之婦也. 幼穉喪母. 哀毀惟篤. 及其嫁也. 或相其篋笥. 有其親之筆跡則輒不忍悲. 涕淚濕衣裳. 嘗有從兄弟與其夫論志曰. 吾慕栗谷之道德與其榮貴也. 其夫亦以爲是. 諸人出. 韓問其夫曰. 諸兄之言如何. 曰. 好. 韓哂之. 夫曰. 何哂. 對曰. 妾思之. 夫栗谷之所以爲栗谷者. 以其有道德也. 使栗谷貧賤而居於深山陋巷. 有何損乎其德哉. 雖榮貴. 有何加焉. 今夫諸兄. 但言其道德. 是誠慕德耳. 俱言其道德榮貴. 是非慕德也. 實其心則慕貴矣. 夫子以爲好. 無乃不可乎. 夫於是服其識. 遂興起而修學以成儒也. 事舅姑. 盡婦道. 其姑嘗親執纜. 諸婦請以身代之. 不許. 諸婦因各歸私室. 韓獨不敢歸. 吹火相其役. 蹻蹻然敬恭而不懈. 蓋悶其勞. 欲協爨以易其事也. 韓非特有識行而已. 亦有文才. 其父親以世俗區區之語爲信而不教

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한씨에 대한 간단한 소개
- ② 남편과의 일화 : 율곡이 도덕이 아닌 영예를 좇는 것에 대한 비판
- ③ 시어머니와의 일화 : 효에 대한 해석
- ④ 한씨의 문예적 재능 : 경서와 역사책을 통달함.
- ⑤ 찬(讚) : ‘여자 선비(女士)’라 칭함.

위 이야기를 통해서 윤지당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 어떠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 한씨 부인과 관련하여 3개의 다른 일화를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도덕’, ‘효’, ‘학문’에 대한 윤지당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첫 번째 일화는 남편과 율곡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그의 도덕을 흠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영예를 흠모하는 것은 지위를 흠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남편의 생각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시어머니와의 일화를 통해서 효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도 길을 지키며 도와드리고자 한 한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윤지당이 생각하는 권도(權道)¹¹⁾로서의 효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세 번째 한씨의 문예적 재능을 기술한 일화를 통해서 친정 아버지가 세속의 구구한 소리를 믿고 글을 가르치지 않았으나, 혼자서 사서삼경의 경서와 역사책들을 통달한 재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서 한씨 부인을 한계진의 딸이라고 소개하였다. 한계진은 한원진의 동생으로,

書。然往往涉書史。略通大義焉。不幸短命死。豈不惜哉。

讚曰。宋氏婦韓。令德孔飭。既孝於親。又達厥識。引夫當道。勵志爲學。古稱女士。非是之謂。不極其年。未見其止。生何奪何。難諶者理。

11)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한원진은 「한씨 부훈」을 써서 당대 여성에게 유교 이념과 규범을 전하고자 하였다. 친정 아버지가 세속의 구구한 소리를 믿고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유교적 젠더 교육을 받았던 집안의 분위기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으로, 유교적 젠더의 자장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윤지당의 비판적 시각도 함께 읽혀지는 부분이다.

3개의 일화로 구성된 이야기에서 종합적으로는 유교적 젠더 안에서 어떠한 여성이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십대의 윤지당이 몰모델로 삼은 한씨의 모습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 남편이 학문을 하도록 권면하며, 친정 아버지가 글을 가르치지 않았으나 스스로 책을 읽고 책에 대해 통달하는 적극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이다.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능동적으로 삶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회가 유교 사회였고, 그 중에서도 한씨의 집안은 유교적 분위기가 강했지만, 그러한 집안 분위기에서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한씨의 모습을 봤던 것이다. 윤지당은 이러한 모습을 거울 삼아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 귀결로 이야기의 마지막에 찬(讚)을 통해서 한씨를 ‘여자 선비(女士)’로 칭하고 있다. “여자 선비(女士)”란, 남편을 바른 길로 가게끔 이끄는 부덕을 갖추고, 어버이에 효를 다하는 인물인 것이다. 임윤지당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을 한씨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전하는 도덕과 효에 대한 가치는, 문집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요소이다. 내용의 3가지 구성 중에 마지막에 위치한 ‘문예’의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3개의 이야기 구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가장 적으나, 마지막에 문예에 대한 일화를 짧게나마 기록함으로써 여성의 문예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유교적 젠더의 관점에서 한씨를 떠올려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윤지당이 평생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문 수양에 대한 관심과 독서에 대한 애호(愛好)가 비슷하여 한씨의 이야기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한씨에 대한 전(傳)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윤지당유고』에서 다수의 인물론과 『대학』과 『중용』 등의 경전을 해석한 글, 논문 등을 써서 남겼는데, 윤지당의 글에서도 “내가 읽은 문헌에 의하면……”¹²⁾, “한나라의 역사책을 보다가……”,¹³⁾ “내가 『자치통감』을 읽을 때마다……”¹⁴⁾ 등의 기록이 보인다.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며, 2번째 전(傳) 작품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최씨·홍씨 모녀(崔洪二女傳)>이다.

어머니 최씨와 딸 홍씨 두 여인은 경상도 삼가현(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의 무사였던 홍 아무개의 부인과 딸이었다. 무사가 남에게 살해되자 두 여인은 원수를 갚고자 맹세하였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효도와 정절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은 정절이며,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효도이다. 이제 가장이 남에게 살해되었는데, 우리가 목숨에 연연하여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 장차 지하에서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으며, 무슨 낮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칼을 품고 원수의 집을 엿보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몇 년 후야야 그를 맞닥뜨려 찔러 죽이고 관아에 들어가 지수하였다. 그 고을 수령이 사건을 중앙에 보고하자, 국가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의롭게 생각하여 살인죄를 용서하였다. 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관아에서 일체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다.

군자는 말씀하시길, “두 여인의 일은 정절과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다. 비록 남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하셨다. 『시경』에서 “저기 저 분이시여. 목숨을 버려도 변치 않으리.” 하였으니, 바로 이 두 여인을 두고 한 말이라 하겠다.¹⁵⁾

12) <論子路>

13) <論李陵>

14) <論司馬溫公>

15) 『允摯堂遺稿』上篇 傳, <崔洪二女傳>, 崔洪二女者。三嘉武人洪氏之妻及女也。

위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최씨/홍씨 모녀가 남편/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함.
- ② 효(孝)와 정절(貞節)의 논리를 세워 원수를 갚고자 함.
- ③ 칼을 품고 다니며 기회를 엿보다 찔러 죽이고(원수를 갚음), 관아에 자수함.
- ④ 조정의 포상과 『시경』을 인용한 두 여인에 대한 평가

위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효(孝)와 열(烈)에 대한 일화로만 구성되어있다. 최씨/홍씨 모녀가 남편/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실제로 원수를 갚은 이야기이다. 이 사건은 『숙종실록』(숙종36년(1710), 10월19일)¹⁶⁾에도 기록이 되어있고, 당시에 담론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가 『본조여사』에도 실려 있다.¹⁷⁾ 『숙종실록』과 『본조여사』에서는 홍아무개가 아닌 홍방필(洪邦弼)로 이름이 기록되어있다. 『숙종실록』과 『윤지당유고』에서는 홍방필이 살해되어 아내 최씨와 딸이 여러 해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복수했다고만 서술되어있으나, 『본조여사』에서는 지니던

武人爲人所殺。二女欲爲報仇。相與語曰。夫人之所以異於禽獸者。以其有孝節耳。妻之報夫讐。節也。子之報父讐。孝也。今夫子不幸而爲人所害。吾等貪生而不報讐。則將何以見夫子於地下。且何以立於世乎。於是。挾劍而窺讐家。數年乃得遇。刺而殺之。入縣告之。太守以聞。朝廷義之。赦殺人罪。復其戶無所與。君子謂二女之事。烈而孝。且有勇焉。雖男子。不能及矣。詩云彼其之子。舍命不渝。二女之謂歟。

16) 慶尙道 三嘉出身洪邦弼, 爲人所殺, 其妻崔氏, 與其女洪氏, 積年伺便, 手刃報仇, 道臣以聞, 上下教曰: "崔、洪兩女, 意在必復, 終能伺便手刃, 又詣官門自首, 其凜凜節義, 無愧古人。此不但特原擅殺之罪而已。" 仍令問于大臣稟處。判府事李濡、左議政徐宗泰皆言: "倚法專殺, 後弊可慮, 旌閭之舉, 有難輕施。特令給復, 以示優嘉, 恐或得宜。" 上從之。

17) 김상집 편저, 황수연·김기림·서경희·이연순·김경미 역주, 『본조여사』, 보고서, 2023, 117~118쪽 참조.

칼로 찢러 간을 갈라서 먹은 것으로 되어있다. 『본조여사』에서는 이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윤지당은 이 사건에 대한 소개에 집중하기보다,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지당의 관점을 서술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서종태의 견해가 『만정당집』에 남아있어 살펴보고자 한다.¹⁸⁾ 〈최씨와 홍씨 두 여자의 복수에 관한 의론(崔洪兩女復讎議)〉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에서, 그 처와 자식의 복수는 주례에서 허락한 행위(“此周官之所許”)라고 정당화하고 있으며, ‘의열(義烈)’을 이룬 여성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윤지당 역시 원수를 갚는 정당성으로 효와 정절의 논리를 세우고 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경』의 〈정풍〉을 인용하여 최씨와 홍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시경』에 나오는 구절에서의 “저기 저 분(彼其之子)”은 염소갓옷을 입은 대부를 뜻하는 것으로, 두 여인의 의열(義烈)을 남성 대부에 비교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유교적 윤리에서 ‘효’와 ‘열’을 중시했던 것과 같이, 윤지당 역시 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에 대한 생각을 초기작 2편의 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윤지당이 생각한 ‘효’를 더 파헤쳐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권도의 측면에서 실천적인 효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편은 모두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전(傳)으로, 십대의 여성으로서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효(孝)와 열(烈)에 대한 실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윤지당은 초기작인 2편의 전(傳)에서 ‘도덕’, ‘효’, ‘학문’이라는 3가지의 요소를 내세우며, 자신이 드러내고자 한 가치관을 문집의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이라 보인다. 이 중에서 ‘도덕’이라는 요소는 이후의 경전 해석과 관련된 글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리학자 임윤지당의 모습을 밝히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18) 서종태, 권진옥·장유승·최예심·이승용 역, 『만정당집』 4, 학자원, 2021, 41~42쪽 참조

논문에서 윤지당이라는 인물의 삶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를 볼 수 있는 ‘효’와 ‘학문’이라는 요소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효’와 ‘학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린 시절의 윤지당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삶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여성들의 삶의 태도와 이념의 실천 양상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다.¹⁹⁾ 혼인 전에 윤지당이 세웠던 삶에 대한 고민과 태도는 그 이후의 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초기작 이후에 나타난 ‘효’와 ‘학문’에 대한 확립

결혼하기 전에 쓴 것으로 알려진 전(傳) 2편에서 드러난 윤지당의 가치관 및 태도는 그 이후에 쓰여진 논(論), 발문(跋文), 논설(論說), 잠언(箴言) 등에서도 이어진다. 2편의 전(傳) 이후에 수록된 인물론(人物論) 11편 중에서 ‘충(忠)’에 대한 이야기들의 비중이 크게 기술되어있기는 하지만, ‘효’와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한다.

1) 권도(權道)로서의 효(孝)

〈온교가 옷깃을 자른 일을 논함(論溫嶠絕裾)〉과 〈악비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회군한 일을 논함(論岳飛奉詔班師)〉에서 ‘효’에 대한 윤지당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온교가 옷깃을 자른 일을 논함〉의 내용은 나라가 망한 후 온교가 사신의 명을 받게 되자 출발할 때 어머니가 옷깃을 잡고 말렸으나, 온교가 칼로 옷깃을 잘라버리고 떠났다. 중국 진나라 때 인물인 온교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두고, 윤지당은 독실한 효자라고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효도

19) 김경미, 『임윤지당 평전』, 한겨레출판, 2019, 97쪽.

라는 것은 백 가지 행실이 근원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도의를 저버리고 공리를 앞세워서 스스로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을 해쳤다고 하였다.²⁰⁾ 『논어』에서 말한, 효도와 공손은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악비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회군한 일을 논함〉에서는 악비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회군한 일을 비판한 글이다. 승리를 앞두고 황제의 명 때문에 회군한 일을 두고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글에서 권도(權道)에 대해 강력한다. “임기응변을 뜻하는 권도(權道)의 ‘권’자는 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을 말한다. 저울을 달 때는 무게에 따라 추를 올리거나 내린다. 이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처리한다는 뜻이다. 아깝다! 악비의 지혜가 권도에 통달하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대사를 그르치고 불충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때 권도를 이야기하며, 순임금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다. “순임금은 부모 몰래 장가를 들었다. 순임금은 만약 부모에게 알렸더라면 끝내 장가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끝내 장가들지 못하였더라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불효의 죄가 되는 것이다.”라 하면서 악비가 황제의 명으로 군사를 회군시켜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냐고 서술하고 있다.²¹⁾ 앞의 이야기에서는

20) 〈論溫嶠絕裾〉, 董仲舒曰。仁人者。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若太眞者。可謂背道誼而上功利。自賊其百行之源。而不免於君子之誅也歟。

21) 〈論岳飛奉詔班師〉, 嗚呼。權者。應變處事之宜。雖不可輕用。而亦有時乎不得不用者。若舜之不告而娶。與孟子所謂嫂溺援手之類。是也。舜如告則不得娶。不得娶則終身無後。爲不孝之罪人矣。嫂溺不援則嫂死。嫂死則爲殺嫂之人耳。武穆之奉詔班師而不得報仇。何以異於是哉。夫權之爲言。稱物之輕重而權度之謂也。此所謂時措之宜也。惜乎。岳公之智不及於達權。而不自知其反陷於謀國不忠之科也。且將在外君命有所不受。蓋人君深處九重之內。在外軍務。不可遙度。故漢文帝謂周亞夫曰。闕以外將軍制之。高宗旣以討賊。委之於武穆。則今雖爲姦臣之所賣而召之。其實召之者。乃秦檜而非高宗。則其可不復請命而遽還哉。藉使高宗召之。武穆旣受闕外之責。則復歸之義重而違命之罪反輕。斷不可遽然奉詔而班。以誤國家之大計也。嗟乎。武穆不識時措之

부모의 만류를 내친 행동을 불효로 규정하고, 이 이야기에서는 부모 몰래 장가를 든 것을 효로 보고 있다. 윤지당은 효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원칙적인 것과는 달랐다. 2편의 전(傳)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른이 거절을 해도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곁에 돕고자 하는 태도나 남편에 대한 정절, 아버지에 대한 효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이후의 글에서 보이는 ‘권도(權道)로서의 효’로 이해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효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효에 대한 의미를 학문 탐구를 통해 확립하고 있으며, 실천적인 면에서의 효를 강조하고 있다.

2) 주체적 성장의 기반, 학문

〈안자의 즐거움을 논함(論顏子所樂)〉에서 안자는 타고난 천성 그대로를 즐겨위한 것이며, 공자와 안자의 즐거움은 똑같이 천성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인과 우리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존재이며, 보통 사람이나 성인은 다 같이 태극의 이치를 함께 얻어 그 성품이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²²⁾ 우리의 성품이 요·순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노력하여 성취해야 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려면 안자가 즐겁게 산 까닭을 연구해야 하고, 안자의 배우기 좋아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면 ‘배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윤지당이 안회에 대해 긍정하고 흠모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²³⁾ 윤지당이 쓴 글들을 통해 안회의

宜。進不能爲國滅賊。以酬平生之忠志。退又不能見幾而作。如韓世忠之騎驢西湖。而父子併首就戮於奸賊之手。良可悲也。余故特論之。以爲後世之不達權宜。而反陷不忠者之戒。

22) 顏子所樂者何 事歟。曰樂天也……孔顏之樂。同是天矣……聖人與我同類者也。衆人與聖同得此太極之理。以爲性耳……況顏子亞聖之資乎。雖然。欲爲聖。當先求顏子之所樂。欲求顏子之所樂。當先學顏子之好學。好學如之何……。

23) 각주5번 참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넘쳤던 모습을 좇고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리학자로서의 윤지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윤지당은 어릴 때부터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그리하여 성리학 관련하여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였다.

아이! 내가 비록 부녀자이긴 하지만,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 비록 안연이 배운 것을 능히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인을 사모하는 뜻은 매우 간절하다. 그런 까닭에 알고 있는 바를 대략 서술하여 나의 뜻을 밝힌다.²⁴⁾

위 인용문은 <극기복례위인설(克己復禮爲仁說)> 중 일부이다. 윤지당의 글 곳곳에서 학문을 수양하고 기록하는 일이 부녀의 덕이 아님을 인지 하면서, 그럼에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윤지당은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언류의 글에서 학문 수양을 강조하는 윤지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학문을 권하는 잠언(勸學箴)>은 ‘친정 큰조카가 작별하며 준 시에 대한 답(謝大侄臨別詩)’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 글로, 학문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밤낮으로 노력하라”, “책 읽고 수행하여 어버이를 욱되게 말아라.”, “공부는 근면 속에 깊어지는 것. 힘쓰고 노력하면 금관 옥대 벼슬하리.”라 하였다. <부지런히 수양하는 잠언(時習箴)>에서도 “높은 데 오르자면 낮은 데서부터, 먼 길을 가자면 가까운데서부터” 부지런히 수양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안자가 학문을 좋아한 것을 찬하는 글(顏子好學贊)>을 통해서도, 안희의 학문에 대한 애호가 매우 특출남을 서술하면

24) <克己復禮爲仁說>, 噫。我雖婦人。而所受之性。則初無男女之殊。縱不能學顏淵之所學。而其慕聖之志則切。故略叙所見而述此。以寓意焉。

서, 학문에는 자만하지 않았던 태도를 찬미하고 있다. 윤지당 역시 평생 학문 탐구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았던 것으로 보이나, 부녀자의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드러내지 않다가, 말년이 되면서 자신의 학문을 드러내고자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성리의 학문이 있음을 알았다. 조금 자라서는 고기 맛이 입을 즐겁게 하듯이 학문을 좋아하여 그만두려 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감히 이녀자의 분수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경전에 기록된 것과 성현의 교훈을 마음 다해 탐구하였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자 조금 말을 할 만한 식견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문장으로 저술하려고 아니하여, 마음 속에 간직해 두고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노년에 이르러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득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으면, 아마도 초목과 같이 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여가가 날 때마다 글로 써 두었다. 그것이 모여 마침내 커다란 두루마리가 되니 모두 40편이다. 첫머리 「송씨댁 부인」에서부터 「안자의 즐거움을 논함」까지 논(論) 8편은 젊을 때 지은 것이다. 그리고 「자로를 논함」이하의 글들은 중년에 지은 것이다.

비록 식견이 천박하고 문장이 영성하여 후세에 남길 만한 투철한 말이나 오묘한 해석은 없지만, 내가 죽은 후에 장독이나 덮는 종이가 된다면 또한 비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권의 책에 정서하여 양자 재준(在竣)에게 넘겨 주었다. 막냇동생 치공(禔共)이 재준에게 말하기를, “누님의 글은 민멸시킬 수 없으니, 내게 한 통을 필사하여 보내라”하였다. 그래서 서조카 재승(在升)을 시켜 베껴서 작은 책자로 만들어 보낸다.

을사년 월 일 씀.²⁵⁾

25) 〈文章謄送溪上時短引〉, 余自幼。知有性理之學。既稍長。愛好之愈。如芻豢之悅口。欲已不能。乃敢不拘方內。潛心默究於方策所載聖賢遺訓。積數十年。略有班窺之可言者。而亦不欲便形文字。內而不出。逮至暮年。死亡無幾。恐一朝溘然。草木同腐。遂於家政之暇。隨隙下筆。遽然成一大軸。總四十編。蓋自首編宋氏婦。至顏子所樂論八篇。兒時作也。子路論以下。卽中晚所述也。雖其識

위 글은 〈문집 초고를 베껴 지계로 보내며(文章謄送溪上時短引)〉로, 문집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글이다. 65세였던 1785년에 썼던 글로, 총 40편의 글을 써서 준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문집에는 35편이 수록되었다. 어릴 때부터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학문에 대한 애정도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글쓰기를 통해 학문에 대한 관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학문을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행위는 꾸준히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나이를 먹고 스스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생각들을 문히게 두지 않고 글로 남겨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인용글에서 “비록 식견이 천박하고 문장이 영성하여 후세에 남길 만한 투철한 말이나 오묘한 해석은 없지만”은 겸어다.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윤지당의 마음이 드러난다. “내가 죽은 후에 장독이나 덮는 종이 가 된다면 또한 비감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글을 남기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글쓰기야말로 죽는 자가 영원히 사는 법”²⁶⁾이라 하였다. 문집을 남긴 여성 문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은 윤지당과 같이 자신의 삶 또는 글쓰기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봤던 만년에 쓴 〈인내의 잠언(忍箴)〉에서 “나는 본래 성질이 조금하여 어릴 때부터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잘 참지 못하였다. 자라나면서 스스로 그 병폐를 알고 힘써 극복하고자 하였다.”와 같은 성격이 글에 반영되어있다. 윤지당의 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직설적이면서 비판적이다.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감추어 말하지 않고 생각을

根淺陋。筆力短拙。無透語妙解可以遺後。然於身沒之後。仍成覆甌之紙則亦足可悲。故書諸一冊子。以授子在竣。季弟穉共謂在竣曰。姊氏文字。不可湮沒。於我乎寫送一通來。遂使庶侄在升。翻寫一小冊以歸之。乙巳月日。題。

26) 최기숙, 『이름 없는 여자들, 책갈피를 걸어나오다』, 머메이드, 2022, 188쪽.

거침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삶의 끝에서야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는 당대의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글쓰기와 독서가 권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숨기거나 가족이 이를 알더라도 묵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²⁷⁾ 글을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윤지당의 부단한 흔적이 그녀가 남겨놓은 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며, 글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4. 『윤지당유고』의 의의: 자기 정체성의 실천적 산물

『윤지당유고』에 수록된 35편의 글은 모두 시가 아닌 산문류의 글들로, 전(傳), 논(論), 발(跋), 설(說), 잠(箴), 명(銘), 찬(贊) 등이다. 이와 같은 글을 통해서 윤지당은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윤지당은 시를 한 편도 남기지 않았는데, 왜 시를 쓰지 않았을까. 선행 연구에서 당시 대부분의 여성 문집들은 시(詩)가 대부분이거나 시문(詩文)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윤지당유고』에는 개별 작품으로는 시가 단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문의 여러 양식 가운데 여성 문인들이 선호했던 서(書)나 서발(序跋), 제문(祭文), 묘지명(墓誌銘) 등의 생활문 또한 비중이 크지 않고, 여성 문인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논(論)과 설(說), 잠(箴) 등이 대부분이라 하였다.²⁸⁾ 선행 연구에서 여성의 시사(詩詞)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평생 시문을 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지적도 있었는데, 과연 그러한가? 부록(附錄)의 「언행

27) 최기숙(2022), 위의 책, 196쪽.

28) 백민자(2018), 앞의 논문, 75쪽.

29) 유정은(2022), 앞의 논문, 181쪽.

록 19조(言行錄 十九條)」 19조에서 윤지당 스스로도 시를 쓰지 않았음을 고백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임종 때 병세가 악화되자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평소에는 시를 지어 본 일이 없다. 지금 정신이 혼몽한 가운데 문득 세 구절의 시를 지었다”고 하셨다. 그 내용을 청하여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단지 슬픔만 더할 뿐이다. 들어서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하셨다. 자부에게 당부하기를, “집안일을 바르게 단속하고, 남녀의 출입을 굳게 삼가도록 해라” 하셨다. 조금 후 태연히 돌아가시니, 바로 계축년 5월 14일 오후이다. 향년이 73세이다.(이상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³⁰⁾

임종 직전 세 구절의 시를 처음으로 지었으나, 왜 말하지 않았을까. 세 구절의 내용을 묻자 슬픔만 더할 뿐이라고 하였다. 윤지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궁리(窮理)’에 두고 있었다. 학문을 탐구하고 수양하고 깨닫고 성인이 되고자 했던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자 했다. 말년에 “문득 세 구절의 시”가 떠올랐지만, “슬픔”만 더해진다는 이유로 내뱉지는 않았다. 이것은 윤지당이 추구했던 삶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심도심사단칠정설(人心道心四端七情說)>은 사람의 심성 수련과 관련한 윤지당의 견해를 보여주는 글인데, “마음이 발동하면 감정[情]이 된다.”고 하였다. 마음을 잘 다스려 도심(道心)이 주가 되고, 인심(人心)이 복종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감정에 동요되어 표현하는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펼치고자 했던 기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 역시 뜻을 말해야 하고(詩言志), 내면의 외면화³¹⁾가 주요 기능

30) 病革謂傍人曰。吾平日未嘗作句語。昏夢中。忽得三句語。請問之曰。只增悲爾。聞之何益。謂子婦曰。整飭家事。謹固門扃。俄而怡然而逝。式癸丑五月十四日午後也。享年七十三。以上記言崇禎三丙辰仲春。

31) stephen owen, 『Readings in Chinese Literary Thought』, <Chapter1. Texts

이나 함축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본인의 기질이 반영된 글쓰기였을 것이다.

또한, 윤지당의 학문적 성향 및 관심은 오빠 임성주의 영향을 매우 깊이 받았고, 자신이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자연스레 체득하고 발현했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학문을 탐구하는 분위기와 오빠와 학문적 교류를 하는 관계 속에서, 윤지당은 성리학에 관심을 두고, 학문을 탐구하고 그것을 서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글쓰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보인다.

칠순의 나이가 다가와 심신이 쇠약하고 병은 점점 많아지니, 스스로 남은 세월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병오년(1786) 겨울에 일찍이 억지스럽게 미루어 헤아리던 생각을 대략 저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방에 있는 처지라 강론하고 질정하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또 정신이 쇠약해져서 말이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심에 팔구는 되었다. 따라서 제대로 형용을 그리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오히려 이 작업을 한 것은 평소의 뜻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고자 한 때문이다. 또한 지혜로운 분의 질정을 기다리고자 함이다.³²⁾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글을 ‘남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신이 글을 쓴 것은 자신의 뜻[志]을 표현하기 위함인데, 자신의 뜻에 대한 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글에서도 “나는 이것들을 신뢰할 수 없다. 다만 내 견해를 적어두고 후세 성현들의

from the Early Period), As a result the shih is not the “object” of its writer; it is the writer, the outside of an inside.

32) 『允摯堂遺稿』下篇, 「經義」, 余少讀唐學。竊欲筭出一得。而因循未果。今七旬且迫。衰病滋甚。自知餘日之無幾。乃於丙午冬。略記所嘗強揣之意。而其奈閨內無講質之益。加以神思銷耗。辭不達意者。十居八九。其不爲摸像之歸者幾希。然而猶爾者。所以少酬平日之志。且以俟知者之斤正云。

판단을 기다린다.”³³⁾라고 서술을 한 부분이 있다. 윤지당은 학문에 대한 애정 및 관심 뿐만 아니라, 비판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학문의 공론장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배우는 인간이기를 원했고, 학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품고 독서와 글쓰기를 해왔던 학문의 주체로서 살아가고자 한 “평소의 뜻(平日之志)”을 실천하고자 했던 임윤지당이였다. 임윤지당의 글에서 자주 보이는 인용해서 말하는 방식 역시 사대부 글쓰기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학문의 주변부가 아닌 공론장으로 들어가 학문의 주체로 성장하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윤지당은 여성으로서의 자립보다는 사회의 공적망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윤지당은 35편이 수록된 『윤지당유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쓴 전(傳) 2편은 정체성 형성의 배경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어린 시절 윤지당이 어떠한 가치관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그때 보여준 여성관, 도덕 및 효에 대한 가치관, 학문 탐구에 대한 관심이 『윤지당유고』에 수록된 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윤지당은 삶의 굴곡을 거치면서 정체성이 변화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굴곡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견고히 다져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윤지당유고』는 윤지당이 지닌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기록해둔 실천적 산물이다.

33) 〈人心道心四端七情說〉, “……吾斯之未敢信也。聊識以待知者。”

참고문헌

- 임윤지당 지음, 이영춘 옮김, 『윤지당유고』, 송키프레스, 2021, 1~278쪽.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 구민정, 「임윤지당의 자기 정체성 구성에 대하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27~49쪽.
- 김경미, 「조선 후기 남성 지식인의 여성 지식인에 대한 평가-임윤지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2,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35~63쪽.
_____, 『임윤지당 평전』, 한겨레출판, 2019, 1~295쪽.
- 김남이, 「임윤지당의 한문 글쓰기 방식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24, 동양고전학회, 2006, 29~57쪽.
- 김상집 편저, 황수연·김기림·서경희·이연순·김경미 역주, 『본조여사』, 보고서, 2023, 1~360쪽.
- 박현숙, 「임윤지당과 강정일당 문학의 사상적 기반」, 『한중인문학연구』 9, 한중인문학연구회, 2002, 26~55쪽.
- 백민자, 「允摯堂의 女性 人物 서술 방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73~95쪽.
- 서종태, 권진옥·장유승·최예심·이승용 역, 『만정당집』 4, 학자원, 2021, 1~467쪽.
- 유정은, 「『윤지당유고』의 傳에 구현된 여성관 연구-「송씨능상부」, 「최홍이녀」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157~186쪽.
- 이남희, 「조선후기 지식인 여성의 생활세계와 사회의식-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185~216쪽.
- 이혜순, 「임윤지당의 정치담론 - 조선후기 여성지성사 서술의 일환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347~388쪽.
- 임유경, 「임윤지당의 전 서술방식과 여성의식」, 『태동고전연구』 1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07~124쪽.
- 정재훈 엮고 주해, 『18세기 조선이 만난 문명』, 그물, 2023, 1~480쪽.
- 최기숙, 『이름 없는 여자들, 책갈피를 걸어나오다』, 머메이드, 2022, 1~387쪽.

ABSTRACT

A Study on Life and Practical Writing in *yunjidangyugo* (允摯堂遺稿)

Lim, Bo-youn

This thesis attempted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of *Im Yunjidang* and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through *yunjidangyugo*. *Yunjidangyugo* contains 35 articles such as *Jeon*(傳), *Non*(論), *Bal*(跋), *Seol*(說), *Jam*(箴), *Myeong*(銘), *Chan*(贊), *Jemun*(祭). In the meantime, as research on *Im Yunjidang*(1721-1793) was actively conducted, his appearance as a Neo-Confucianist was revealed, and he was positioned as a female Neo-Confucianist in the late Joseon Dynasty. Since *Yunjidangyugo* contains articles in the order of time, the process of *Yoonjidang's* solidification of identity is revealed through the articles contained in the collection. Therefore, this article tried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anthology by paying attention to her early work and following her values and attitudes toward life.

Through the first two stories of anthology, it was confirmed that the values of 'morality', 'filial piet', and 'academic' were regarded as important, and *Yoon Ji-dang's* view of this value was continuously revealed in the anthology. Even if an adult refuses, an attitude to help others to ease the trouble, sincerity toward her husband, and doing something that pays back enemies to protect filial piety to her father can all be understood as the 'filial piet as a political expediency' shown in the following article. It can be seen that *Yunji-dang's* writings recognize that it is not the virtue of the women to cultivate and record studies, but still reveal himself as writing. *Yoonji-dang's* writing is straightforward and critical. She does not say her thoughts indirectly but expresses her thoughts without hesitation.

In other words, *Yunjidang* shows his values and attitudes toward his life through *Yunjidangyugo*, which contains 35 episodes. The early two

articles show what values *Yoonjidang* had in his childhood, and the women's view, values of morality and filial piety, and interest in academic inquiry are confirmed through the articles contained in *Yoonjidangyugo*. *Yoonjidang* is not a process of changing his identity through the twists and turns of life, but shows the aspect of maintaining and solidifying his identity even in the twists and turns of life. Her anthology is a practical product that actively records *Yoonjidang's* values.

Key Words *yunjidangyugo*, *Imyunjidang*, identity, Practical Writing, filial piet, study, political expediency

논문투고일: 2024.01.15.

심사완료일: 2024.02.03.

게재확정일: 2024.02.07.